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12면	명륜가족체육대회	1
강원도민일보	12면	강릉명륜가족체육대회	1
江原日報	12면	강릉대도호부관아에서 펼쳐지는 빛의 신화	1
강원네트워	온라인	주문진읍 한마음 대잔치 개최	2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3
강원도민일보	11면	원주기업도시 상생마켓 기업·시민 모두 활짝	3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선포식·한마당 체육대회	4
江原日報		“모락모락 안흥찐빵, 입안 가득 가을 추억”[1/2]	5
江原日報	03면	“도 산하기관 출연동의안 제출 시 소통·자료 제출 성실히 ...	7
강원도민일보	04면	도의회,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20억원 추가출연 동의안...	7
충청MBC	온라인	게임 산업 진흥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8
G1방송	온라인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9
NEWSIS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진흥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10
강원도민일보	22면	"여성 농업인 '농업·농촌 생명지킴이' 자부심 갖자"	11
江原日報	21면	“지위 향상·식량 안보 공익기능 실현 앞장”	11
강원도민일보	04면	'예술로 기후·환경을 생각한다' 에코아트페어 제로섬씽 개...	12
강원도민일보	15면	평창 대화중·고 동문체육대회	12
江原日報	14면	가을 강변 풍광에 흠뻑	13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재춘홍천군민회 한마음대회 개최	13
江原日報	온라인	영사협, 제10회 영월군사회복지대회 개최	14
江原日報		[포토뉴스] 화천군민 한마당 축제 제39회 용화축전	15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2023 강릉시 강남동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	16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춘천국제물포럼2023 댐과 사람들 개최	17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박호균 도의원	18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엄기호(철원) 도의원	18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원제용 강원자치도의원(원주)	18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18

江原日報	06면	“신청사·행정복합타운 조성 만전” 김 지사, 전라남도 찾아 ...	19
강원도민일보	04면	도내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15% '저조'	20
江原日報	04면	'1도1국립대' 반발하는 삼척캠퍼스 강원대 적극적 사실관...	20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시 WT본부 건립비 내년 국비 확보 사활	21
江原日報	01면	폐광 피해 9조... 태백·삼척 위기지역 신청	2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농촌관광을 새 여행 트렌드로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R&D 예산 대폭 삭감, 지역 연구 산업 고사 위기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초등교사 '임용 절벽', 수급 문제 해결 근본 대책은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전환기 경제현실 대응 시점 놓쳐선 안돼	25

江原日報 2023 10 16 () 12



명륜가족체육대회 제47회 명륜가족체육대회가 지난 14일 명륜고 운동장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황학수 지방시대위원장, 김도영 명륜학원이사장, 정광대 명륜고 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6 () 12



강릉명륜가족체육대회 제47회 강릉명륜가족체육대회가 최근 모교 운동장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지사, 황학수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장, 김광래 강원도립대총장, 김도영 명륜학원이사장, 이수하 강릉명륜고총동문회장, 정광대 명륜고교장을 비롯한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10 16 () 12

강릉대도호부관에서 펼쳐지는 빛의 신화

내달 5일까지 미디어아트축제 IT·문화유산 접목
홀로그램·AI작품·VR체험 전시 프로그램 풍성

【강릉】'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가 지난 14일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렸다. 강릉대도호부관이 일원에서 '빛으로 만나는 강릉의 신화'를 주제로 다음달 5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리는 '강릉대도호부관아 문화유산 미디어아트'는 IT 기술을 문화유산에 접목한 신개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다. 개막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과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화목 강릉문화원장, 김은규 총감독, 고은채 예술 감독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시민 박태규(38)씨는 "강릉대도호부관아가 이렇게 멋진 미디어과사드의 장소로 변모해 신기하다"며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좋은 기회"라고 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강릉문



◇2023 강릉대도호부관아 미디어아트 개막식이 14일 강릉대도호부관아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미디어 아트를 관람하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화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강릉대도호부 곳곳에 미디어 파사드 작품과 홀로그램 등을 설치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AI 인공지능 작품과 당간지주 모형·학바위 미려룸 등 공간 조형물, VR 체험 등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류효준·권태명기자

김화목 강릉문화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행사인 만큼 문화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방문객분들 모두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기간 안목과 강릉대도호부관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홍제동 공영주차장, 환경발전소 공영주차장, 남대천 제방 길·둔치, 강릉초교, 해람중 등에는 임시 주차장도 마련됐다. 관람료는 무료로 자세한 사항은 강릉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효준·권태명기자

2023 10 13 ()

주문진읍 한마음 대잔치 개최



'제42회 주문진읍민 한마음 대잔치'가 주문진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함군호) 주관으로 13일(금) 오후 2시 주문진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규 시장과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읍민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경품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어 읍민 모두가 즐겁고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함군호 주문진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며 서로 돈독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하나되는 주문진읍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춘방 기자

2023 10 15 ()

江原日報

[동정]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권혁열(강릉) 도의장은 16일 오후 4시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를 주관.

2023 10 16 ()

강원도민일보

원주기업도시 상생마켓 기업·시민 모두 활짝

도시 준공 후 첫 공식 상생 행사
20개 기업·26개 소상공인 참가
홍보·판매·체험 부스 운영
축하 공연 등 풍성 방문객 호응



2023 원주기업도시 상생마켓 개막식이 지난 14일 기관·단체와 기업과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2023 원주기업도시 상생마켓 ‘Come Funny Market’이 지난 14, 15일 이틀간 원주기업도시 샘마루 공원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2019년 원주기업도시 준공 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의 공식 상생 행사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주목받아왔다.

축제장은 20개에 달하는 원주 기업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위주로 홍보 및 판매 부스를 선보이고 26개 소상공인이 각양각색의 체험·판매 부스를 개장, 주말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 등과 찾는 수많은 시민들로 축제내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같은 인기로 일부 기업 및 소상공인은 14, 15일 매번 당일 행사가 끝나기 전 물품이 매진, 일찌감치 폐장하거나 추가 물품 확충을 위해 자신의 본사를 수차례 오가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여기에 전통가요 지킴이가수 조명섭 축하 공연, 지역예술팀 여섯줄사

랑과 프레스오양상블의 공연, 마술·별문쇼, 나팔박 공연, 우드양상블, 팀클라운 공연, 즉석 이벤트 등이 축제내내 이어지며 지루할 틈 없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 각광받았다.

이번 상생마켓은 개막식 때부터 호응을 얻으며 한층 발전할 기업도시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첫날인 14일 열린 개막식은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 이재용 시장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김태훈 부시장, 박은주도 기업지원과장, 조용석·이상길·손준기 시의원, 이상현 문화원장, 원경목 원주농협 조합장, 이광연 원주축협 상임이사, 시민 등이 대거 찾아 현장을 가득 메웠다.

경민현 부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상생마켓을 계기로 원주기업도시가 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내 최고 도시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박정하 국회의원

은 축사에서 “상생마켓을 통해 원주기업 물품의 우수성을 또 한번 직접 확인했다”며 “경쟁력 있는 원주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부시장은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며 원주기업도시가 강원발전의 중심이자 바로미터로 더욱 성장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시장의장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면지역인 원주기업도시(지정면)가 전국 최고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은 “상생과 발전이 어우러지는 원주기업도시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2023 10 15 ()

강원도민일보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선포식·한마당 체육대회

권혜민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선포식 및 제2회 한마당 체육대회가 최근 원주양공장에서 박정하(원주갑)·송기현(원주을) 국회의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이재용 시의장, 김태훈 부시장, 최성우 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원주시 주민자치의 날 선포식 및 제2회 한마당 체육대회가 최근 원주양공장에서 박정하(원주갑)·송기현(원주을) 국회의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이재용 시의장, 김태훈 부시장, 최성우 시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khm29@kado.net

2023 10 14 ()

江原日報

“모락모락 안흥찐빵, 입안 가득 가을 추억”

횡성 제15회 안흥찐빵축제 이틀째 차량 방문 행렬
찬바람 속 가족, 지인들과 산골 마을 정취 온몸 체험



개막식 메인 무대에 자리한 안흥찐빵.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가 장난감 자동차 트랙 경주를 즐기고 있다.



축제장에 마련된 안흥찐빵 부스에 방문객이 몰리고 있다.



제15회 안흥찐빵축제 유공자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황성 안흥찐빵 향과 맛을 즐기려는 인파가 이어지고 있다.

제15회 안흥찐빵축제 이틀째인 14일 메인행사장인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과 안흥면소재지 일원에서는 전국에서 안흥찐빵을 찾아 온 방문객과 차량이 몰려 산골마을의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어머니 손맛'을 맘껏 즐겼다.

이날 오전 메인무대에는 주민단체공연이 계속됐고, 오후 2시부터는 오리엔탈쇼커스, 우카 탕카, 동혜 등 황성문화관광재단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졌다.

오후 4시부터는 찐빵이벤트로 찐빵 빨리 먹기, 황금찐빵을 찾아라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다.

오후 5시부터는 김동하의 스탠드업 코미디와 해비치밴드 DJ그룹 행오버가 주도하는 밴드 공연 & EDM파티가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안흥찐빵 판매장과 안흥면 소재지 찐빵 판매업소에는 안흥찐빵을 몇 상자씩 구매한 고객들이 줄지어 이동하며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끽했다.

축제 셋째날인 15일에는 면민가요제가 대미를 장식한다.

첫날 13일 저녁 열린 개막식에는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표한상 군의회 부의장과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과 최규만 도의원, 이상규 안흥찐빵축제위원장, 최순석 둔내농협조합장, 임원규 안흥농협조합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황성=유학렬기자

2023 10 16 ()

江原日報

03

“도 산하기관 출연동의안 제출 시
소통·자료 제출 성실히 임해야”

강원자치도의회 주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도 산하기관 출연 동의안 제출 시 상임위와 사전에 소통할 것과 성실한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상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기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의원들은 출연 동의안을 통해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일부 기관은 자료가 부실해 판단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시성(국힘·속초) 도의원은 “(이날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재단 대표들이 의회와 사전에 소통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류에 ‘비용 요청’만 나와 있다고 지적한 원미희(국힘·비례) 도의원은 “지난해 대비 얼마 늘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관희(국힘·춘천) 의원은 “강원문화재단은 올해 도립극단과 통합한 만큼 향후 예측되는 변화 등도 설명돼야 제대로 심의할 수 있다”고 당

부했다. 정재웅(더민주·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역시 “예산안 심의 전 출연 동의안 의결이 관행에 지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설명했다. 윤승기 도 문화체육국장은 “별도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별책으로라도 전체 사업 계획 등을 작성해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기하(국힘·동해) 도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 출연 동의안’에 대해 “2024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난 상태인데 이제 서야 동의안을 올리면 절차상 문제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 내년부터는 9월 전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기자

2023 10 16 ()

강원도민일보

04

도의회,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20억원 추가출연 동의안 가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2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동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정재웅)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고 대회 조직위 운영 2023년 추가출연금 20억2800만원 동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인력 식사비 및 숙박비 부족분 8억8200만원, 의료서비스 6억3100만원, 물류비용 5억1500만원 등이다. 조

직위 운영을 위한 도비는 지난 2020년 20억, 2021년 40억, 2022년 45억, 2023년 95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됐다. 올해 추가 출연금(국비 33억8400만원 등 포함) 85억원을 비롯해 지난 2020년부터 투입된 출연금은 총 785억원(국비 313억8400만원·도비 220억2800만원·국제올림픽위원회 등 250억8800만원)이다.

또, 사문위는 게임(e-스포츠) 대회

를 지원하고, 도 게임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 조례’(대표발의 심오섭)를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도경제진흥원 30억9600만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지원(강원신용보증재단) 3억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강원테크노파크) 1억5000만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원 등 출연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설화 lofi@kado.net

춘천MBC

2023 10 13 ()

게임 산업 진흥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강원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심오섭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강원도가 차세대 게임 인력 양성과 같은

게임 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에 게임 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게임의 국내 시장 규모가

22조 원에 달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게임 산업 진흥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 차원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2023 10 14 ()

G1방송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도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게임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게임산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2023 10 13 ()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진흥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도내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게임은 국내시장 규모만 22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글로벌시장 규모는 무려 240조원을 넘어서고 있을 만큼 엄청난 미래먹거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23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강원도민일보

“여성 농업인 ‘농업·농촌 생명지킴이’ 자부심 갖자”

제3회 강원 여성농업인의 날 성료
우수농업인 표창·정책토론회 등
도 “수요 반영 정책 추진 최선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이 최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렸다. 지난 2019년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위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한 이후 세번째 행사이다.

한국여성농업인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송연옥)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의 생명 우리는 여성농업인!’을 주제로 도내 약 600여명의 여성농업인들이 참석했다.

우수여성농업인 시상, 여성농업인



한국여성농업인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송연옥)는 최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근골격계 질병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은 안화선 한여농 영월군연합회장이, 농촌진흥

청장 표창은 이현주 양구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장이 수상했다.

도지사 표창은 엄순덕(인제)·신진희(영월)·윤복선(평창)·신상옥(횡

성)·기다노마리꼬(양구)씨가 받았으며 변영희 한여농강원도연합회 사무실장과 안정미 농가주부모임도연합회장은 각각 도의회 의장 표창과 농협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송연옥 한국여성농업인도연합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여성 농업인은 스스로 농업 농촌 생명지킴이로 자부심으로 가져도 된다”며 “후배 농업인들은 지금보다 좀 더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있기에 강원 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고 석성균 도정 농정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호

江原日報

“지위 향상·식량 안보 공익기능 실현 앞장”

도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유공자 13명 표창 수상도

강원지역 여성농업인들이 농촌 발전과 농업인 지위 향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는 지난 13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석성균 도 농정국장, 임상현 도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700여명의 내빈과 여성 농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이현주(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씨가 농촌진흥청장 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회장: 송연옥)는 지난 13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창을, 변영희(한국여성농업인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씨가 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13명의 여성농업인이 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용복 도의회 농수위원장은 “내년도 농업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정책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연옥 회장은 “도내 농업인의 53%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은 강원의 생태계와 식량 안보를 책임지며 공익기능을 실현해 왔다”고 했다. 김오미기자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하고 춘천시가 후원하는 '에코아트페어 제로섬씽2023' 개막식이 13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열렸다. 서영

‘예술로 기후·환경을 생각한다’ 에코아트페어 제로섬씽 개막

강원디자인진흥원서 22일까지

기후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한 미술전시 '에코아트페어 제로섬씽2023' 개막식이 13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열렸다. 차빛나 싱어송라이터의 공연으로 문을 연 개막식에는 전시에 참여한 길종갑·안용선·홍나겸·김경옥·장덕진·홍현지·황호석 작가를 비롯해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시의회 부의장과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양숙희 도의원,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장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작

품을 감상했다.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하고 강원행복시대가 주관하며 춘천시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강원 출신이거나 도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각 예술작가 26명이 'Life삶 Life생활'을 주제로 참여, 설치·회화·사진·영상·도예·조각·디지털드로잉 등 총 200여 점을 선보인다. 1차 전시는 22일까지 진행된다. 강주영 ▶관련기사21면

강원도민일보

2023 10 16 ()

15



평창 대화중·고 동문체육대회 평창 대화중·고 동문체육대회가 지난 14일 학교 운동장에서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김광성·남진삼·이창열 군의원과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최인선 동문회장과 동문과 가족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가을 강변 풍광에 흠뻑

동해 전천둔치 걷기대회

본보 후원 수백명 참여
공연·체험부스 등 다채

깊어지는 가을 화창한 날씨 속 2023년 동해 전천둔치 강변 산소길 걷기대회가 지난 14일 시민 수백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졌다.

동해시·동해시보건소가 주최·주관하고 강원일보사가 후원한 이번 걷기대회는 전천둔치 야외무대에서 출발해 청운교를 지나 귀운교에서 반환, 다시 야외무대로 돌아오는 5km 구간에서 펼쳐졌다. 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화창한 가을날 전천 둔치를 걷고 건강을 챙기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다.

걷기대회에 앞서 목호노인 종합복지관 소속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미라클 하모니카 공연단과 미라클 라인댄스 공연단의 공



◇2023년 동해 전천둔치 강변 산소길 걷기대회가 지난 14일 전천둔치 야외무대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 수백명이 참여해 화창한 날씨 속 전천 둔치를 걷고 건강을 챙기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연이 펼쳐져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동해시보건소가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워크온 걷기 앱·대사증후군 관리 홍보 등도 실시됐다.

이날 대회에는 심규언 동해시장, 이동호 동해시의장과 이창수·최이순 시의원, 김기하 도의원, 김종곤 NH농협 동해시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심규언 시장은 “동해에는

전천을 비롯해 40여곳의 걷기길이 조성돼 있다”며 “많은 시민이 걷기 길을 이용해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와 사색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호 시의장은 “걷기대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이 가을빛 물든 전천을 만끽하고 가족의 건강과 이웃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해=전명록기자

江原日報

[포토뉴스]재춘 흥천군민회 한마음대회 개최



재춘 흥천군민회(회장:이건실)는 15일 춘천 후평초교에서 '2023년도 재춘 흥천군민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의장, 박영록 흥천군의회장, 홍성기 도의원, 오흥수 흥천부군수,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이규설 흥천군번영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3 10 13 ()

江原日報

영사협, 제10회 영월군사회복지대회 개최

영월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는 13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제10회 영월군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충’을 슬로건으로 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엄태현(영월의료원).김철미(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김류화(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지명숙(영월군가족센터)씨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사회 복지 시설 및 기관, 단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주민 등 지역 사회 복지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영월시네마로 자리를 옮겨 영화 감상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규태 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역 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는 사회 복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감사드린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살기 좋은 영월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이규태)는 13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최명서 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김길수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영월군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3 10 15 ()

[포토뉴스] 화천군민 한마당 축제 제39회 용화축전



화천군민 화합 한마당 축제인 제39회 용화축전이 지난 13일 화천생활체육공원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이화영 문화원장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5개 읍·면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0 14 ()

江原日報

[포토뉴스] 2023 강릉시 강남동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



2023 강릉시 강남동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이 14일 강릉단오제전수 교육원에서 김태형 강남동발전협의회장, 최상보 강남동장, 박호균 도의원, 김남호 강남동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2023 강릉시 강남동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이 14일 강릉단오제전수 교육원에서 김태형 강남동발전협의회장, 최상보 강남동장, 박호균 도의원, 김남호 강남동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2023 강릉시 강남동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이 14일 강릉단오제전수 교육원에서 김태형 강남동발전협의회장, 최상보 강남동장, 박호균 도의원, 김남호 강남동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15 ()

춘천국제물포럼2023 댐과 사람들 개최

이설화



▲ ‘춘천국제물포럼2023 댐과 사람들’이 지난 13일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소양강댐과 지역사회’ 세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춘천국제물포럼2023 댐과 사람들’이 지난 13일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소양강댐과 지역사회’ 세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0 16 ()

12



박호균 도
의원은 16
일 오후 4
시 강릉세
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리는 대한
민국시도의회 의장협
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16 ()

16



엄기호(철
원) 도의
원은 16일
오전 10시
철원 근남

면 사곡리 구은사에서
열리는 구은사 추계제
향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10 13 ()

[동정] 원제용 강원자치도의원(원주)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열리는 2023 원주 독서대전 개회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 10 15 ()

[동정]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철원 근남면 사곡리 구은사에서 열리는 구은사 추계제향에 참석.

2023 10 16 ()

江原日報

06



◇김진태 지사가 지난 13일 전라남도청을 견학,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청사·행정복합타운 조성 만전” 김 지사, 전라남도 찾아 벤치마킹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신청사 건립 사전 준비를 위해 지난 13일 전라남도청을 견학했다.

타 광역지자체 청사 견학은 지난해 12월 경상북도청 벤치마킹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이날 20여년 전 신청사 건립 담당자였던 김종갑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건립 현황과 신도시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청, 재난종합상황실, 충무시설, 도의회, 소방본부, 야외공원 등을 둘러봤

다. 김진태 지사는 “전라남도청의 선례를 우리 도의 현실과 특성에 맞게 접목할 것”이라며 “신청사 이전 건립과 새롭게 조성될 행정복합타운이 도민이 이용함에 있어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청은 ‘남악 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해 2001년 착공, 2005년에 준공됐다. 건축연면적 7만6,739㎡, 지상 23층~지하 2층 규모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도내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15% '저조'

평창군·양양군 집행액 '0원'

지난해 9월 기금 배분 기간 촉박 집행 저조 다음 연도 축소 우려

강원특별자치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평균이 1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기초지자체 12곳의 기금 집행률 평균은 지난 6월 말 기준 15.11%로 나타났다. 12곳 기금 총 732억원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강원도내 기초지자체별 집행 현황 (인구감소지역 12곳) (23.6.30.)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 12곳	사업 건수	배분액 (원)	집행액(원)	
				집행액	집행률
소 계	43	732억	110억6345만1179	15.11%	
태백시	2	60억	1607만5300	0.27%	
삼척시	3	60억	33억2648만4240	55.44%	
홍천군	1	60억	9억5453만8626	15.91%	
횡성군	3	60억	1억1155만	1.86%	
영월군	5	60억	2억6947만4919	4.49%	
평창군	5	72억	-	0.00%	
정선군	6	72억	34억6067만6600	48.06%	
철원군	7	60억	13억8683만6420	23.11%	
화천군	2	60억	1155만3208	0.19%	
양구군	4	60억	4억3214만106	7.20%	
고성군	4	60억	10억9412만1760	18.24%	
양양군	1	48억	-	0.00%	

운데 110억7000만원 수준을 집행했다. 인구감소지역 전국 기초지자체 89곳 평균 집행률은 19.20%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 가운

데선 삼척시가 55.44%로 유일하게 집행률이 50%를 넘겼고, 정선군(48.06%)이 뒤를 이었다. 평창군(기금 총 72억원), 양양군(48억원)은 집

행 금액이 아예 없었다. 화천군(0.19%), 태백시(0.27%), 횡성군(1.86%)도 집행률이 매우 낮았다.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4개 시·군(강릉·동해·속초·인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도 4.94%로 미미했다. 동해시(15억)는 집행률이 0%였고, 속초시(18억) 2.22%, 인제군(18억) 4.75%, 강릉시(15억) 13.39%로 집계됐다. 이같이 낮은 집행률은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집행률이 10%도 채 안 되는 지자체는 총 62곳(58%)으로, 기금을 받는 기초 지자체 107곳(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가운데 절반 이 넘는 수치다.

반면, 강원도를 포함한 광역단체 15

곳에 배분된 기금의 집행률은 93.7%로 집계돼 기초지자체(107곳 18.9%)와 격차가 컸다.

강원도는 지난 6월 말 기준 기금 257억7685만원을 모두 집행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의 경우 기금 배분이 9월에서야 이뤄져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기준으로도 집행실적이 여전히 0%에 머무른 것으로 봐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아직 심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화

江原日報

'1도1국립대' 반발하는 삼척캠퍼스 강원대 적극적 사실관계 확인 나서

'정원 줄고 발전 없다' 주장에 "통합 이후 규모 유지" 반박

'강원1도1국립대' 추진과 관련 삼척캠퍼스 총동문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강원대가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총학생회와 공직협의회, 교수회가 참여한 대학 구성원협의회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합법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강원대는 지난 14일 삼척캠퍼스의 정원이 줄어들고 발전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윤종철 강원대 삼척캠퍼스 기획지원처장은 "삼척캠퍼스 총동문회는 지난 2006년 강원대-삼척대 통합 이후 삼척캠퍼스의 정원이 8,

000명대에서 5,000명대로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의 구조 변화에 따른 편제정원 조정과 학령인구 감소 등 대외 요인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삼척캠퍼스 정원 감소는 같은 시기 통합된 거점국립대 제2캠퍼스들이 정원을 30% 이상 감축한 것과 비교했을 때 대학 통합 이후 캠퍼스의 규모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강원대와 삼척대 통합 이후 학생들이 춘천캠퍼스로 전과, 삼척캠퍼스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삼척캠퍼스에서 춘천캠퍼스로 전과한 학생은 연간 20~40명 정도의 수준이고, 이는 삼척캠퍼스 전체 정원의 0.5~0.6% 비율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춘천시 WT본부 건립비 내년 국비 확보 사활

총예산 절반 국비 충당 계획
내년도 정부 예산안 미반영
실시설계비 5억원 편성 과제
문체부 방문 당위성 피력 예정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에 성공한 춘천시가 본부를 조성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업비 절반을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내년도 국비 반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WT 본부 건립 예산을 190억원으로 책정

했다. 이중 절반인 95억원은 국비로 확보하고 도비 30억원, 시비 65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WT 본부는 송암동 일원에 들어선다. 국비 확보는 본부 건립을 위한 사실상 첫 단추다. 국비를 확보해야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예산에도 해당 비용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춘천시가 지난 8월에야 본부 유치를 최종 확정하면서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WT 본부 비용이 빠진 상태다. 춘천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 5억원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가

당위성을 피력한다.

예산이 최종 반영될 경우 내년도 추경을 통해 시비와 도비 각각 2억원과 3억원을 확보,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2025년 착공해 늦어도 2027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

WT 본부 설립은 민선 8기 춘천시정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WT는 213개 회원국을 보유, 본부를 춘천에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춘천시는 태권도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WT 본부 설립과 맞물려 춘천시는 태권도 교육도시 조성에 착수, 태권도를 통한 '체덕지 통합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 건강하고 인성이 바른 지역의 인재들을 배출, 육동한 시장의 시정 철학인 '최고의 교육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직도 개편한다. 춘천시는 지난 8월 춘천레저조직위원회와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조직위원회를 통합했다. 명칭은 '춘천 레저·태권도 조직위원회'로 결정했다. 오는 18일 춘천시청에서 출범식을 겸한 비전 선포식도 갖는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태권도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ssnnee@kado.net

江原日報

폐광 피해 9조... 태백·삼척 위기지역 신청

道 장성·도계 광업소 폐광 앞두고 고용·산업위기특별지역 추진
2,561명 실직 ... 정부 지정시 대체산업 등 지역별 1조5천억 지원

2024년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이 예정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초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태백과 삼척 완전 폐광 시 9조원 이상의 피해와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강원자치도는 반드시 정부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원자치도는 우선 내년 1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 완료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 실사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로 예정된 태백 장성 폐광 이전에 위기지역 지정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현금성 지원 등을 위해 지역별로 국비 330억원이 지원된다.

강원자치도의 최종 목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다.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 생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산자부가 지정한다. 다년간 대체산업 육성,

SOC(철도·도로 등) 구축, 금융 지원 등 지역별로 1조5,000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태백과 삼척은 폐광지가 장성동과 도계읍 등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정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앞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연이어 지정된 전례가 있어 도는 태백과 삼척 역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완전 폐광 시 피해는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가 지난해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 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백시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시의 경우

5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삼척 도계읍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의 피해가 집중되고 태백 장성동의 피해도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는 셈이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16 ()

/ 19

농촌관광을 새 여행 트렌드로

-도내 곳곳 투어 행사, 농촌 새 수익원 기대

도시인들에게 시골의 자연과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이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지원 정책을 펴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관광 해설사를 양성하는 한편, 교통 편의도 제공하는 등 농촌관광이 새로운 여행 추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은 침체하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관광 아이템입니다. 지역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방문객 맞춤형 편의시설을 확충하면 주민 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관광에 대한 지역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양군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관광 버스는 주목할 만합니다. 45인승 버스를 임차해 총 왕복 20회 운행하는 버스는 수도권과 양양지역 주요 축제 및 농촌 마을을 연결합니다. 군은 농촌관광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농촌 체험관광 버스 임차를 지원합니다. 버스는 2019년 NH농협 네트워크와 체결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며, 양양군이 버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버스는 농촌관광 활성화의 모델로 타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철원지역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

한 '농플철원' 택시투어도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습니다. 올해 초부터 운영되는 택시투어는 관광택시와 농촌 체험을 접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부담이 적은 교통수단을 제공합니다. 고석정과 철원 현무암 주상절리, 철원역사문화공원을 방문하는 3시간 코스와 근대역사 문화·지질명소, DMZ평화(안보)관광지, DMZ생태공원을 둘러보는 5시간 코스 등이 있습니다.

관광 프로그램은 이들 지역뿐 아니라 도내 시군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됩니다. 횡성은 더욱 깊이 있는 농촌관광을 위해 농촌 체험관광 해설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기간 중 열리는 횡성더덕축제와 횡성한우 축제에서 교육생들은 직접 고객을 맞아 프로그램 해설을 진행하는 등 실습 교육도 마련했습니다.

농촌관광은 강원관광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웰니스와 워케이션 등 새로운 관광 패턴에 더해, 강원관광의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지역과 지자체는 참가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관광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현지의견 수렴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10 16 ()

/ 19

R&D 예산 대폭 삭감, 지역 연구 산업 고사 위기

정부가 2024년도 국가 R&D(연구 개발) 예산을 33년 만에 삭감한 초유의 사태에 지역 연구계도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의 R&D 예산은 무려 3분의 2가 줄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R&D 예산안 중 비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R&D 예산이 올해 3,460억원에서 내년 1,131억원으로 67.3%(2,329억원)나 감소했다. 전체 R&D 예산 감소 폭이 13.5%인 것을 감안하면 지방 쪽 예산의 삭감 폭은 과도하다. R&D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교, 연구소 등을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했다.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역의 R&D 예산 감소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말과도 배치된다.

R&D 예산 축소의 여파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강릉원주대와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지역 농업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2024년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북방지역 사과 재배적지 선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 기술 개발 및 품종 선발' 연구과제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았다. 강

릉원주대뿐 아니라 도내 각 분야 연구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수들은 당장 내년도 대학원생 총원과 연구과제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여기에도 대한수학회, 대한물리학회, 대한화학회 등 주요 기초학문 학회들은 최근 성명을 냈다. "줄속으로 마련된 정책은 미래를 견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축된 기초연구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방적인 연구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고하라는 것이다.

기초연구는 성과가 느리고 사업화하기도 힘들지만 이 부분의 축적 없이 한국이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이번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개발 카르텔' 한마디에 줄속 추진됐다. 심각한 부작용이 뻗은 예산 삭감은 막아야 한다. 여야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미래 먹거리를 지킬 해법을 찾기 바란다. R&D 예산 감축 피해는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부생, 현 대학원생 그리고 비정규직 연구원에게 집중된다. 연구비 삭감으로 기초과학자를 꿈꾸는 젊은 연구자들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장애가 생기고 결국 피해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게 분명하다.

江原日報

2023 10 16 () / 19

초등교사 '임용 절벽', 수급 문제 해결 근본 대책은

강원지역 초등교사 선발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 접수 결과 69명을 선발하는 초등교사(일반) 시험에 278명이 몰려 4.0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도입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기존에는 2011학년도에 기록한 3.9대1이 역대 최고였다. 강원지역 초등 선발 경쟁률은 매년 상승 추세다. 2019학년도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1대1수준이었지만 2021학년도 2.53대1, 2022학년도 2.84대1, 2023학년도 2.97대1 등으로 경중 뛰었다. 갈수록 초

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일부 교사 지망생은 극심한 경쟁률 속에서 시험을 치르거나 아예 교직의 꿈을 접고 다른 진로를 택할 수밖에 없다.

경쟁률이 치솟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 신규 임용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 올 8월 도교육청이 발표한 2024~2028학년도 중장기 학생 추계를 보면 현재 6만9,300명인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25년부터 급감해 2028년에는 5만5,800명 선으로 내려가는 등 학령인구 절벽이 현실화된다. 초등 학교 임용 절벽 현실화는 예고된 일이다.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게 정부 기조이지

만 전국 교대 입학 정원은 그대로다. 선발 시험에 응시하려는 교대 졸업생은 매년 쏟아지고 있는데 선발 인원은 갈수록 감소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합격하고도 발령을 못 받는 임용 적체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등 교사가 더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겸임수업, 업무 과중, 기간제 교사 채용 등 교원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단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 효용성에 바탕을 둔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한 지역사

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때다. 농어촌 교육을 교사 직전으로 내몰고 도심지역의 과밀학급 증가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도내 교육계에서는 경제 논리로만 정책을 추진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적지 않은 교사가 '보따리장수'처럼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등 교원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한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수를 줄인다면 최소한의 교육 환경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신경호 교육감의 말대로 강원 특별법 특례를 통해서라도 도내 교사 수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강원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내년 경쟁률 4.03대1...2003년 이후 최고
 학령인구 감소에 신규 채용 대폭 축소돼
 강원특별법 특례 등으로 풀어 나가야

강원도민일보

2023 10 16 ()

/ 19

전환기 경제현실 대응 시점 놓쳐선 안돼

-서비스업 저조한 디지털 활용 소득 악화, 청년 공조해 대응을

강원지역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계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률이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산업이 주력인 강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지역 경제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및 무인결제기기 활용률은 전국 하위로 나타난 것을 매우 우려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의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강원도 최하위 내지 하위권에 머무는 현상이만 연화됐다고 해서 이 사안까지 안이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업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과 특성 분석’에 따르면 도내 서비스업 계의 디지털 기술 활용률은 하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중 사업체에 서의 플랫폼 및 무인결제 등 디지털 기술 활용률이 실제 소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전국 서비스업 계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로 도내 무인결제기기 활용률은 0.9%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전국 숙박·음식점 전체 사업체 86만여 곳 중 약 20%, 가장 높은 세종시는 30%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강원은 14%로 17개 시도 중 14위에 그쳤습니

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열악한 환경이 소득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 활용 업체가 미활용에 비해 종사자 수 및 매출은 2배 정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은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현실이고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이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행태가 급변하는 전환기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사업체 대처가 늦어질수록 치명적일 수 있음을 단적으로 알려줍니다. 저조한 디지털 기술 활용률 문제점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생존 기반을 더 악화하는 요인이 될 것은 불보듯 합니다.

강원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디지털 기술 활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긴 하나 변화하는 소비경향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후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업계에 닥쳤습니다. 이극상 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디지털 기술 활용이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계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소상공인 디지털 환경 구축과 인식 개선 등으로 강화해 낮은 수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